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23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해주신 김석년 목사님(한성공동체)께 감사드립니다.
4. **성령강림절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5. **전교인야외예배**: 6월 16일(주일) 오전 11시, Lorimer Park (183 Moredon Rd.)
6. 성경통독: 제9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89일) 진행 됩니다.
7.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기도. 6/12(수) 8시 Zoom 기도회(빌립보서 강해)
8. 감사: *점심-우영자 권사님께서 대접. *강당미화-김반석 목사(졸업/생일 감사)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봉헌 (\$ 2,018.00)

- 십 일 조**: 김반석,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진원 유금자,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조우형 이해련.
- 감 사**: 김반석,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유혜영, 이경원,
 이승택,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 주일헌금**: 고향숙 최호상, 김기영, 김반석,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 선교헌금(7Days 감사)**: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2024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폭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5. 과테말라 (이누가) 병원 치료사역 및 현지인 전도

제16권 23호 2024년 6월 9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 | | |
|---|----------------------|--------|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 엘림찬양단 | |
| 합심기도 Prayer | 다 같이 | |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다 같이 | |
| ♣ 송 영 Spiritual Song | 다 같이 | |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 박종님전도사 | |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 인도자 | |
| 찬양 Anthem | 찬양단 | |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요한복음 1:12 | 다 같이 |
| 설교 Sermon | 자녀 권세로의 초대 | 김석년 목사 |
| 봉헌송 Hymn |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다 같이 |
| ♣ 헌금봉헌 Offering | 찬송가 213장 (4절) | 다 같이 |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 | 조병우 목사 |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밤 8:00 (ZOOM)

화~토 새벽 6:00

이번 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박종님 전도사	조병우 목사	우영자 권사	조민연 권사
다음주	김반석 목사	박종님 전도사	여선교회	박종님 전도사



“자족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를 찾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것을 선택하지만, 최고를 찾는 사람은 언제나 최선을 선택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늘 많은 선택을 앞두고 결정을 못 내리면 불안, 우울, 불만족 같은 ‘놓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성취에 대한 세상의 약속은 결코 온전히 지켜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뿌리내리기를 바라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딤후 6:6)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딤후 6:8)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자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최고를 찾고자 하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을 때, 우리 영혼은 진정한 만족과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A chronic indecision indicates a ‘maximizer’, in contrast to a ‘satisficer’. A satisficer makes choices based on whether something is adequate for their needs. Maximizers have a need to always make the best choice. The potential outcome of our indecision in the face of many choices is called fear of missing out like anxiety, depression, and discontent. Paul challenged Timothy to find value in God rather than the things of this world. The world’s promises of fulfillment can never fully deliver.

Paul wanted Timothy to instead root his identity in God: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1Tim. 6:6). Paul sounds like a satisficer when he adds, “But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we will be content with that” (v. 8). When we focus on God and relinquish our compulsive urge to maximize, our soul can move toward genuine contentment and rest.